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56호 【루계 제24569호】 주체103(2014)년 6월 5일 (목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 대동강과수종합농장과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을 돌아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대동강과수종합농장과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을 돌아보시였다.

박봉주동지, 황병서동지, 리재일동지, 최휘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해당 부문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 조성된 과수밭면적이 대단하다고 하시면서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자면 과일의 정보당 수확고를 부단히 높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과일생산은 지력에 의하여 크게 좌우된다고 하시면서 농장에서는 이미 마련된 과수와 축산, 축산과 과수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과수원의 지력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과일나무는 자연지리적, 기상기후적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시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우량품종의 과일나무들을 육종하고 재배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 오니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간절해진다고, 사과꽃 피워놓고 아뢰면 또 오실가라는 노래구절이 떠오른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망대에서 끝간데없이 펼쳐진 과수의 바다와 산기슭마다에 들어앉은 문화주택들, 문화후생시설들을 부감하시며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사회주의무릉도원, 인민의 리상촌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과일을 먹이시려고 헌신과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이 대규모과일생산기지로 훌륭히 일떠설수 있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은 우리 인민들에게 남기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유산, 애민유산이라고 하시면서 농장에서 더 많은 과일을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보내줌으로써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과일생산을 늘이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2 면으로 계속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 대동강과수종합농장과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을 돌아보시였다

1 면 에 서 계 속

농장과 과수연구부문의 역할을 더욱 높여 과일생산의 과학화, 현대화, 집약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은 우리 나라의 중요한 과일생산기지인것만큼 련관부문들에서 농장에 필요한 기계, 농약, 비료를 비롯한 설비자재들을 원만히 공급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을 돌아보시면서 경영활동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공장을 돌아보던 날을 회고하시며 공장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과일가공품을 안겨주시기 위해 마음쓰시던 장군님의 념원을 현실로 꽃피울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굴지의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이 자기의 은을 내게 하자면 과일을 떨구지 말고 공급해주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였다.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이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며 각종 과일가공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고 그 질과 위생안전성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동강과수종합농장과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의 전체 종업원들이 한그루의 과일나무를 가꾸고 하나의 제품을 생산해도 그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유훈을 관철하는 성스러운 투쟁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힘있게 벌려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천출위인의 령도따라 백두의 혁명정신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해나가리
## 전국청소년학생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 혜산 출발, 보천보혁명전적지 답사, 우등불모임 진행

무산지구전투승리 75돐에 즈음하여 전국청소년학생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에로의 답사행군이 시작되였다.

전국의 모범적인 청소년학생들로 이루어진 답사행군대는 주체의 혁명전통을 만대에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선군혁명천만리길을 끝까지 이어갈 새 세대들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안고 4일 혜산시에 있는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앞에서 출발모임을 가지였다.

참가자들은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에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태양상을 모신 초상기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태양상을 모신 초상기가 모임장소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모임에서는 장현철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온 나라 천만군민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장엄한 진군을 다그쳐나가는 격동적인 시기에 무산지구전투승리 75돐에 즈음하여 전국청소년학생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이번 답사행군이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개척하시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빛내여오신 백두의 혁명정신을 모든 청소년들이 조선혁명의 넋으로, 생명으로 간직하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도록 하는데서 의의있는 계기로 되게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전체 행군대원들은 답사를 통하여 혁명의 사령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한 항일혁명선렬들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따라배워 오직 백두의 혈통을 받드는 길만이 승리와 영광의 길이라는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에 끝까지 충직한 열혈의 청년전위가 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답사행군대원들이 용기백배, 기세드높이 백두의 행군길을 꿋꿋이 이어나감으로써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새 세대들의 철석의 의지를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이 끝난 다음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태양기를 대오앞에 높이 모신 답사행군대원들은 공화국기, 청년동맹기발, 답사행군대기발을 휘날리며 보천보를 향하여 행군을 시작하였다.

혜산시의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답사행군대원들을 열렬히 환송하였다.

답사행군대는 항일의 불바다를 헤쳐온 혁명선렬들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으로 행군길을 다그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직지휘하신 보천보전투가 진행된 력사의 땅에 들어섰다.

가림천기슭에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린 답사행군대원들은 보천보전투지휘처, 경찰관주재소, 면사무소, 우편국 등을 돌아보면서 천재적인 군사적예지와 지략으로 보천보에 승리의 총성을 울리시여 우리 인민들에게 조국해방의 서광을 안겨주신 항일의 전설적영웅의 비범한 위인상을 뜨겁게 새겨안았다.

이날 저녁 답사행군대원들은 가림천가에서 우등불모임을 가지였다.

지금으로부터 77년전 력사의 그날 보천보의 밤하늘을 환히 밝히던 홰불인양 우등불이 세차게 타오르는 가운데 장편서사시 《백두산》이 랑송되였다.

모임참가자들은 보천보에 지펴올리신 혁명의 홰불을 더욱 높이 추켜드시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으로 가슴끓이였다.

합창시 《길이 빛나라 영광의 땅이여》에서 출연자들은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지펴올리시였던 력사의 홰불은 싸우는 조선의 정신과 의지를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한 승리의 홰불이였다고 강조하였다.

《영광의 땅 보천보》, 《타오르라 우등불아》 등의 노래들을 힘차게 부르면서 전체 답사행군대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약동하는 조국강산을 인민이 만복을 누리는 지상락원으로 일떠세우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청춘의 열정과 슬기를 남김없이 발휘해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활활 타오르는 우등불두리에서 혁명가요의 선률에 맞추어 춤판을 펼쳐놓은 답사행군대원들속에서 혁명의 계승자들의 심장의 맹세인양 전투적인 구호의 함성들이 울려나와 보천보의 밤하늘에 메아리쳐갔다.

【조선중앙통신】

# 온 나라에 백두산바람을 일으키신 력사적장거

##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길을 개척하신 58돐을 맞으며

선군의 기치높이 비약의 폭풍을 일으키며 승승장구하는 우리 혁명에는 무한대의 힘의 원천이 있다.

지난해 11월 삼지연혁명전적지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이며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인 대기념비를 돌아보니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결심과 의지가 더욱 굳세여진다고,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답사사업은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항구적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백두의 혁명전통, 그것은 우리 혁명이 부닥치는 도전과 시련을 과감히 박차며 백승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게 하는 강위력한 추동력이다.

장구한 투쟁의 길에서 우리 혁명의 명맥을 순결하게 이어주고 무한한 활력으로 천만의 심장을 창창한 미래에로 떠밀어주는 주체의 혈통에 대하여 생각할수록 근 60년전 초행길을 헤치시며 온 나라에 백두산바람을 일으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더듬어보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선렬들이 이룩한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것, 이것이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 길이며 우리의 사회주의를 지키고 주체혁명위업을 확고히 계승완성해나가는 길입니다.》**

참으로 준엄한 1956년이였다.

밖에서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겠다고 날뛰고 안에서는 종파분자들이 쏠라닥거리며 혁명전통을 거세말살하려고 발악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 백두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수호하고 빛내이실 억척같은 신념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힘있게 선언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발자취가 새겨져있는 로정을 따라 직접 행군도 해보면서 수령님의 령도따라 항일유격대원들이 얼마나 어려운 시련과 난관을 헤치며 싸워서 오늘의 승리를 가져왔는가 하는것을 배우자!

천고의 밀림을 헤쳐야 하는 길, 어른들도 감히 엄두를 못 낼 생소하고 험난한 길에 10대의 중학생들이 나선다는것은 보통용단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것이였다.

어찌하여 우리 장군님께서 결연히 이 길에 나서시였는가.

답사행군을 앞두고 하신 그이의 말씀이 되새겨진다.

백두산일대에까지 답사하는것이 결코 헐한것이 아니지만 꼭 가야 한다. 이 문제는 오늘 비로소 생각하고 결심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굳혀온 결심이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를 답사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

백두산지구에로의 첫 답사행군, 그것은 백두산에서 탄생하시여 령장의 담력과 슬기를 지니신 우리 장군님께서만이 내놓으실수 있는 발기였다. 그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백두산에서 시작하신 혁명의 행군길을 드팀없이 이어가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의 분출이였고 혁명의 배신자들에게 내리는 무서운 철추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를 답사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결심을 적극 지지하시며 우리 나라 속담에 《첫 새벽문을 열면 오복이 들어온다.》는 말이 있다, 물론 한 가정의 새벽문을 여는것은 그리 힘든것이 없다, 하지만 조국과 인민, 당과 혁명을 위하여 나라의 첫 새벽문을 열고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초행길을 걷는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그런 일은 가장 영광스럽고 보람찬 일로 되는것이다, 혁명전적지에 대한 첫 답사가 바로 그렇다고 생각한다, 초행길인것만큼 굳게 마음을 먹고 한번 걸어보아라고 말씀하시였다.

주체45(1956)년 6월 5일, 이날은 지원의 숭고한 사상을 내놓으시고 조선독립을 위하여 투쟁하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 서거하신 때로부터 30돐이 되는 날이였다.

그날 력사적인 행군길에 나서시며 김형직선생님의 한생에 관통되여있는 지원의 사상으로 심장을 불태우시고 10대의 시절에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맹세를 다지시며 혁명의 천리길에 나서시던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한 모습도 숭엄히 그려보시였을 위대한 장군님,

만경대가문의 혈통을 이어 10대의 나이에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의 초행길에 나서신 우리 장군님은 그때에 벌써 주체혁명위업의 계승과 완성을 책임지신 걸출한 위인이시였다.

보천보와 리명수, 삼지연 등을 찾으시여 어버이수령님의 항일혈전사의 세계사적지위를 확정하시고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옹호고수할 굳은 맹세를 다지신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자욱은 백두산지구의 광활한 전구들에 소중히 새겨져있다.

보천보에 모셔진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경건히 우러르시며 멸적의 총성으로 삼천리강산에 조국해방의 서광을 안겨주시고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불같은 웨침을 터치시던 항일의 전설적영웅의 선군의지를 가슴속깊이 새기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항일의 혈전만리에 새겨져있는 하많은 사연을 소중히 품에 안고 숭엄하게 솟아있는 혁명의 성산을 바라보시며 나는 언제나 백두산을 잊을수 없다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홰불을 높이 지펴올리신 백두산은 온갖 시련을 헤쳐온 우리 혁명의 력사를 전하며 길이길이 솟아 빛날것이라고 확언하시던 그날의 음성을 길이 전하려는가 삼지연의 맑은 물결은 오늘도 끝없이 출렁이고있다.

갑무경비도로의 한복판으로 붉은기를 펄럭이며 씩씩하게 행군하는 답사행군대오의 진두에 서시였던 우리 장군님의 거룩한 모습이 눈앞에 어리여온다.

동무들, 이제부터 우리는 항일유격대원들이 일제의 삼엄한 경계속을 뚫고 대낮에 보무당당히 행군한 갑무경비도로로 가게 됩니다, 이 력사적인 길로 우리가 어떻게 차를 타고 지날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항일유격대원들처럼 행군합시다라고 하시며 행군대오의 앞장에서 힘차게 발걸음을 옮기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혁명전적지에 온것만큼 잠시 휴식을 하여도 항일유격대원들처럼 규률있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배낭도 질서있게 정돈하게 하시고 포태천기슭에서 점심식사를 하게 되였을 때에는 항일유격대원들과 함께 생활하여본 자신께서 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손수 밥도 지으신 우리 장군님의 모습은 오늘도 백두의 행군길을 이어가는 답사대원들의 마음속에 거울로 빛나고있다.

력사의 그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답사행군에 참가한 학생들과 량강도안의 일군들에게 혁명전적지들과 혁명유적유물들을 다 찾아내고 보천보와 삼지연을 비롯한 혁명전적지들을 더 잘 꾸리며 혁명전적지답사로정을 보천보로부터 백두산마루까지로 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단행하신 력사의 그 초행길이 있어 우리 민족의 귀중한 재부들이 만대에 빛을 뿌리고 선군혁명위업이 모진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승승장구하는 휘황한 시대가 펼쳐질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에 의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길의 개척,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를 따라배우며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력사적사변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길을 개척하심으로써 혁명전적지답사를 통한 혁명전통교양의 시원이 열리고 온 나라에 백두산바람이 세차게 일어번지게 되였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의 초행길에 새겨진 우리 장군님의 거룩한 자욱을 떠나 세대와 세기를 이어 꿋꿋이 고수되는 주체혁명위업의 명맥을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개척하신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길은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끝없이 이어지고있다.

— 백두의 칼바람을 언제나 심장에 안고 살자!

이것이 오늘의 빨찌산 김대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이다.

본사기자 김승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 불같은 일념안고 백두산정에 오르는 답사행군대오 본사기자 신충혁 찍음

# 경애하는 원수님은 숭고한 도덕의리의 화신

## 애국렬사릉에 보내주신 화환

애국렬사들에게 돌려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은정으로 빛나고있는 영생의 언덕으로 숭고한 사랑이 비껴흐른다.

하늘이 울고 강산이 몸부림치던 민족대국상의 나날 가장 고결한 인간애를 지니시고 천만군민의 삶과 행복을 꽃피워주신분이 계시였으니 그이는 렬사들을 영생의 모습으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혁명가유자녀들의 영원한 친어버이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혁명가유자녀들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봐줄것입니다.》**

주체101(2012)년 1월초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격동적인 화폭이 애국렬사릉에 펼쳐졌다.

항일혁명렬사 고태봉동지의 생일 100돐 추모행사가 진행된것이다.

고태봉동지로 말하면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로선을 받들어 항일혁명투쟁에 참가하여 용감히 싸우다가 적들에게 체포되여 무기징역형을 받고 10여년간의 옥중투쟁을 벌려온 견결한 혁명투사였다.

해방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적들의 갖은 악행속에서도 혁명적절개를 꿋꿋이 지켜온 고태봉동지를 자신의 곁에 두시고 크나큰 믿음과 은정을 거듭 안겨주시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깨끗한 량심을 묻으며 일하던 그가 뜻하지 않은 사고로 다치였을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체 아픈 내색을 하지 않고 일에만 열중하고있는 투사를 경치좋은 곳에 가서 료양을 하도록 온갖 사랑의 조치들을 다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하늘같은 은덕이 아니였다면 오랜 기간의 옥중생활로 폐인이나 다름없었던 그가 어떻게 90돐생일상까지 받으며 정치적생명을 빛내일수 있었겠는가.

투사에 대한 절세위인들의 사랑은 끝이 없었으니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애국렬사릉에 영생의 모습으로 내세워주시고 자식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해 충실히 일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렬사가 우리곁을 떠나고 애국렬사릉에 안치된 때로부터 어느덧 오랜 세월이 흘렀다.

같이 일하던 일군들은 대국상을 당한 절통함에 잠겨 렬사의 생일이 100돐이라는것을 미처 생각지 못하고있었다.

렬사의 생일날이 다가오게 되자 가족들은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집에서 조용히 제를 지내자고 토의하였다.

바로 그러한 때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은 오래전에 떠나간 렬사의 생일을 잊지 않으시고 100돐추모의식을 진행하도록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신것이다.

유가족들은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아버지가 살아계셔 100돐생일을 맞는다 해도 나라에 대국상이 났다는것을 알았다면 단호히 생일상을 마다했으리라.

그런데 우리 원수님께서 오래전에 떠나간 아버지의 생일 100돐을 잊지 않으시고 자신의 존함으로 된 화환까지 보내주시다니…)

너무도 꿈같은 현실에 애국렬사릉으로 황황히 달려온 유가족들은 놀라움과 감사의 정으로 쏟아지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였다.

솟구치는 격정을 애써 누르며 그들은 화환을 보고 또 보았다.

어버이장군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애국렬사릉에 보내주신 화환이였다.

지금이 과연 어떤 때인가.

온 나라가 피눈물에 젖어있고 하늘땅 그 어디에나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어려있는 때였다.

아직은 어버이장군님의 서거 100일추모회도 지내지 못하고 우리 인민모두가 마음속상복을 입고있던 때였다.

공화국창건 50돐을 맞으며 묘비들에 렬사들의 생전의 모습을 새긴 돌사진을 붙이도록 하시고 특색있게 변모된 애국렬사릉을 돌아보시면서 혁명의 길에서 고귀한 생을 마친 혁명렬사들의 삶을 끝없이 빛내이며 영생의 모습으로 내세워주는것은 우리 당의 변함없는 도덕적의리이라고 하시며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잘 꾸리도록 해주신 우리 장군님,

그 사랑을 오늘은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시고 또 주시는것이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의 존함이 모셔진 화환의 댕기를 소중히 가슴에 안은 유가족들은 오래도록 렬사릉을 떠날줄 몰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혁명적의리의 세계가 가슴가득 미쳐왔기때문이다.

본사기자 리금분

# 절세위인의 거룩한 행로에서

## 몸소 백두산정에 오르시여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어느날 몇몇 일군들을 부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자고 말씀하시였다.

벌방에서는 록음이 짙어가기 시작했지만 백두산에서는 눈보라가 기승을 부리고있던 때인지라 일군들은 그이께 눈보라가 잦은 다음에 백두산으로 오르자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왜 눈보라 사나운 이런 날에 백두산에 오르려고 하는지 아는가, 백두밀림에 차넘치던 백두의 혁명정신이 어떤 간고한 시련속에서 이루어졌는가 하는것을 더 깊이 체득하기 위해서이다고 하시였다.

얼마후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일군들은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헤치며 백두산의 정점에 올라섰다.

눈보라가 휩쓰는 백두산의 눈부신 설경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수령님께서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선의 언덕을 맞받아 헤쳐나가시였다고 하시면서 백두의 혁명정신은 만난을 맞받아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싸우는 견결한 투쟁정신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백두산정에 서시여 삼천리 조국강산을 오래도록 굽어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이런 심장의 맹세를 굳게 다지였다.

영원히 백두의 혁명정신을 안고 위대한 당을 따라 끝까지 한길을 가리라고.

## 연길폭탄을 잊지 말라

주체75(1986)년 7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중요대상건설에 필요한 자재명세를 보아주시던 때에 있은 일이다.

당시 해당 부문 일군은 건설대상들에 필요한 자재를 다른 나라들에서 수입해들여오는것으로 타산하고있었다.

일군이 올린 문건을 주의깊게 보고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잠시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그에게 하나의 잊지 못할 이야기를 들려주시였다.

…지난 항일무장투쟁시기 간도의 혁명가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청원편지를 냈을 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모든것을 자력갱생하여 조선혁명의 승리를 이룩해야 한다고 결심하시고 마촌골안에 철공소를 차려놓게 하시였다.

그 철공소가 후날 마촌병기창 또는 소왕청병기창으로 불리워진 밀림속의 병기창이였다. 바로 그 병기창에서 유명한 연길폭탄이 제조되여 일제놈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기였다. …

그러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연길폭탄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자신께 조선혁명이 승리할 때까지 연길폭탄을 절대로 잊지 말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살라고 교시하시였다고, 자신께서는 우리 일군들이 자력갱생할 생각을 하지 않고 무엇을 내라고 손을 내밀 때마다 연길폭탄을 생각하군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 정순학

# 력사의 새벽길과 더불어 빛나는 불멸의 혁명생애

6월 5일은 조선혁명과 영원히 떼여놓을수 없는 력사를 새겨준다.

혁명의 길은 저절로 열리지 않으며 그 기슭에는 의례 인민이 잊지 않는 선각자들이 있는 법이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

김형직선생님께서는 1894년 7월 10일 만경대에서 탄생하시여 1926년 6월 5일 서거하실 때까지 일생을 혁명에 바치신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였으며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무산혁명에로의 방향전환의 위대한 선구자이시였다. 민족수난의 력사를 끝장내고 나라의 독립을 성취하기 위한 김형직선생님의 불굴의 투쟁과 전생애에 관통되여있는 지원의 사상, 3대각오, 동지획득사상은 력사와 더불어 빛나며 혁명하는 모든 사람들의 피를 끓이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무슨 일을 하든지 높은 리상과 포부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지 않는다면 성공할수 없다.**

**그러나 지원의 사상은 개인의 영달이나 립신양명을 념두에 둔 세속적인 인생교훈이 아니라 조국과 민족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참된 보람과 행복을 찾는 혁명적인생관이며 대를 이어가며 싸워서라도 기어이 나라의 광복을 이룩해야 한다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이다.》**

지원!

김형직선생님께서 품으시였던 이 숭고한 리념에는 몸이 찢겨 가루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싸워 기어이 인민의 새 사회를 건설하시려는 의지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한 투쟁에서 참된 보람과 행복을 찾으신 혁명적인생관이 비껴있다. 선생님께서는 지원의 사상을 평생 간직하시고 력사의 새벽길을 초인간적인 정력과 의지로 헤치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아버님이신 김보현선생님과 어머님이신 리보익녀사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였다.

나라를 독립시키지 못할바에야 살아서 무엇하겠습니까. 내 몸이 찢기여 가루가 될지언정 일본놈들과 싸워이겨야 하겠습니다. 내가 싸우다 쓰러지면 아들이 하고 아들이 싸우다 못하면 손자가 싸워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나라의 독립을 성취하여야 합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그 말씀을 오랜 세월 잊지 못하시였다. 삼사년이면 끝장을 볼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항일무장투쟁이 장기전으로 넘어갈 때 그 말씀을 다시 상기하시였고 해방후 북과 남으로 갈라져 상반되는 길을 걷고있는 민족분렬의 비극을 체험하시면서 그 말씀에 담겨있는 심오한 뜻에 숙연한 생각을 금치 못하시였다.

참으로 혁명은 한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며 대를 이어 계속하여야 하는 장기적인 위업인것이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대를 이어서라도 싸워야 한다는 김형직선생님의 견결한 투쟁정신은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가야 할 조선의 혁명가들이 영원히 간직하여야 할 정신으로 되고있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지원의 뜻을 안으시고 국내는 물론 국외의 광활한 지역을 종횡무진하시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한 길을 모색하시였고 동지들을 묶어세워 무산혁명의 대중적지반을 축성하시였다.

이미 중학시절에 광범한 군중속에서 반일선전을 힘있게 벌리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보다 적극적인 투쟁을 위해 직업적인 혁명가로 나서신 후 애국적인 교육활동을 벌리시는 한편 여러 지방을 다니시며 뜻을 같이할 동지를 규합하고 인민대중을 계몽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시키시였다. 선생님께서는 멀리 간도일대와 상해 등지에까지 나가시여 독립운동자들과 련계를 맺으시고 그곳 독립운동실태를 료해하시였으며 지하혁명조직결성사업을 정력적으로 밀고나가시였다. 그 과정에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시였다.

조선국민회는 나라의 독립을 위한 김형직선생님의 고귀한 정신과 불굴의 투쟁의 산아로서 3.1인민봉기를 전후한 시기 우리 나라에서 무어진 조직들가운데서 가장 규모가 큰 반일지하혁명조직의 하나였으며 가장 혁명적인 조직이였다. 조선국민회가 결성됨으로써 반일민족해방투쟁을 민족자체의 힘으로 힘차게 벌릴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였으며 조선국민회는 튼튼한 대중적지반을 가지고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을 힘있게 선도하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혁명가는 굶어죽을 각오, 맞아죽을 각오, 얼어죽을 각오를 가지고 처음 먹은 원대한 뜻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어떠한 간난신고도 달게 여기시며 조직을 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벌리시였다. 그리하여 조선국민회는 조직된지 얼마 안되여 국내각지와 멀리 국외에까지 확대되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조직에 묶어세우시기 위하여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으시였다. 동지를 위해 죽을수 있는 사람만이 좋은 동지를 얻을수 있다고 하시면서 희생을 무릅쓰시고 동지획득을 위한 길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치시였다. 조선국민회를 끊임없이 확대하시며 반일민족해방운동을 앞장에서 이끄시던 나날에 일제놈들에게 체포되여 갖은 악형을 당하시며 옥고를 치르기도 하시였지만 선생님께서는 애국의지를 조금도 굽힘이 없이 싸우시였다. 출옥후 새로운 투쟁의 전구로 떠나시면서 선생님께서 지으신 시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의 신념과 의지의 분출이였으며 대를 이어가며 싸워서라도 기어이 독립의 새봄을 안아오시려는 억척의 맹세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청수동회의에서 무산혁명의 력사적필연성을 론증하신데 기초하여 관전회의에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을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무산혁명에로 방향전환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이것은 반일민족해방운동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의 길에서 김형직선생님께서 이룩하신 또 하나의 빛나는 업적이였다.

김형직선생님에 의하여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에서는 새로운 앙양이 일어나게 되였다. 선생님의 지도밑에 국내외에서 무장단의 군사활동도 적극화되였다. 무장단들은 수많은 전투를 벌려 조선인민의 기개를 시위하고 일제침략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으며 인민들을 반일투쟁에로 불러일으켰다. 이 시기 여러곳에서 분산적으로 일제와 싸우던 무장단체들이 반일민족해방투쟁에 통일적으로 조직동원될수 있게 된것은 병고의 몸이심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자들의 행동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벌리신 김형직선생님의 불면불휴의 활동의 결과였다.

1926년에 들어서면서 김형직선생님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자제분들의 손을 잡으시고 나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간다, 그러나 너희들을 믿는다, 너희들은 언제든지 나라와 민족의 몸이라는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뼈가 부서지고 몸이 조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라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라는 유언을 남기시고 너무도 젊은 나이에 서거하시였다.

가정을 생각하기에 앞서 겨레를 생각하고 조국을 먼저 생각하시며 풍파사나운 투쟁의 길을 일생 쉬임없이 걸으신 견결한 혁명가, 인간으로서도 청렴하게 사시고 혁명가로서도 결백하게 사신 위대한 애국자!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아드님께 지원의 사상, 3대각오, 동지획득에 대한 사상과 함께 두자루의 권총을 물려주시였다. 그것은 력사에 전무후무한 험난한 투쟁의 길을 헤쳐가셔야 할 우리 수령님께 남기신 고귀한 혁명유산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있어서 김형직선생님은 혈육이시기 전에 혁명의 길로 떠밀어준 스승이시고 지도자이시였으며 백절불굴의 혁명가의 귀감이시였다.

민족수난의 암담한 시기 몸이 찢겨 가루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기어이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 맹세를 안으시고 력사의 새벽길을 헤치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고귀한 생애와 혁명업적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나고있다. 불멸의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세기와 세기를 이어 이 땅에 높이 울려퍼지며 사람들로 하여금 조국과 민족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바쳐진 김형직선생님의 애국의 한생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게 하고있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지원의 높은 뜻과 빛나는 혁명생애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에로 힘차게 떠밀고있다.

본사기자 박철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 에짚트아랍공화국 대통령 당선자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까히라

에짚트아랍공화국 대통령당선자

**아브둘 파타흐 알 씨씨각하**

나는 최근 귀국에서 진행된 대통령선거에서 당신이 에짚트아랍공화국 대통령으로 당선된것과 관련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에 존재하는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안정과 경제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3(2014)년 6월 3일 평 양

# 조국의 바다는 그 어떤 대적도 침범하지 못한다

해군절을 맞이한 뜻깊은 이 아침 파도쳐 설레이는 조국의 푸른 바다가 우리 가슴속에 끝없는 격랑을 일으킨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것을 자랑으로 여겨왔다.

하지만 그 바다를 통하여 왜적이 침노하였고 그 바다에서 해적들에게 강탈도 당하였다.

조국의 바다에 새겨진 민족수난과 불행의 력사를 끝장낸것은 지금으로부터 68년전 위대한 수령님께서 수상보안대를 조직해주신 력사적인 그날부터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의 불길속에서 무르익히신 주체적인 해군무력창설의 원대한 구상이 이 땅우에 현실로 꽃펴남으로써 내 나라의 바다는 조국결사수호의 억센 성벽을 가진 진정한 우리의 바다로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민족의 100년사는 탁월한 수령을 모셔야 나라와 민족의 존엄도, 강성번영도 있다는 철의 진리를 뚜렷이 확증해준 력사입니다.》**

해군무력의 창설과 강화발전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이 있어 변변한 군함 한척 없던 우리 나라가 무적의 함대를 가지고 조국의 바다우에 위대한 전승의 력사를 아로새겨왔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해군은 단 4척의 어뢰정으로 미제의 중순양함 《볼티모》호를 격침시킴으로써 세계해전사에 류례없는 혁혁한 전과를 세웠으며 1960년대에는 우리의 령해에 불법침범한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단숨에 나포하여 조선의 바다는 그 어떤 원쑤도 침범 못하는 금성철벽의 바다라는것을 온 세상에 높이 시위하였다.

백두령장들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슬하에서 무적필승의 혁명대오로 강화발전된 해군무력의 필승의 력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오늘의 영광스러운 시대에 더욱 줄기차게 굽이쳐 흐르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전선길에서 해군무력의 싸움준비완성을 위해 깊은 사색과 크나큰 로고를 다 바쳐가고계신다.

지난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한 해군부대의 상륙전투행동을 지도해주시였다.

수평선너머에서 불시에 나타난 고속함정들이 해안으로 련속 벼락같이 돌입하고 해안에 등륙한 일당백의 용맹스러운 전투원들이 평시에 련마한 전투동작으로 《적》진에 비호같이 달려들어 단숨에 타고앉는 모습을 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펄펄 난다고 하시면서 아마 훈련이 아니라 실전이면 적들이 미처 정신을 차릴새 없을것이라고 높이 치하하시였다.

원쑤들이 우리의 령해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순간의 주저도 없이 불벼락을 내려 침략자들을 모두 수장해버림으로써 조국의 바다를 적들의 최후멸망의 무덤으로 만들라는것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강철의 의지이다.

열렬한 조국수호정신, 원쑤격멸의 담대한 배짱을 안으시고 해군무력강화발전을 걸음걸음 이끌어오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첨단군사과학기술성과를 도입하여 새로 건조한 전투함선들을 여러차례 보아주시고 기동훈련도 세심히 지도하시였다. 지능화가 높은 수준에서 보장된 함선은 항해와 사격조종을 비롯한 모든 전투행동을 자동적으로 할수 있으며 각종 대상물들에 대한 타격을 동시에 진행할수 있는 21세기의 전투함선이라는데 대하여 간곡하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의 정력적인 령도아래 우리의 해병들은 만단의 결전준비를 갖춘 영용한 바다의 싸움군들로 튼튼히 준비되고있다.

세상을 놀래우는 우리 해군무력의 무적의 힘!

과연 그것은 무엇을 원천으로 우리 조국의 바다를 지키는 억센 성벽으로 다져지고 원쑤격멸의 총폭탄으로 만장약되고있는가.

우리 병사들을 위해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같은 사랑이다.

해군부대들을 찾으실 때마다 국수감은 무엇인가, 꽈배기는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해병들이 맛있어하는가도 세심히 알아보시고 료리를 잘하여 많이 먹이라고 뜨겁게 당부하시는 자애로운 어버이 경애하는 원수님,

2년전 3월 우리 인민은 당보에 실린 한장의 사진앞에서 눈물을 머금었다.

바다물에 춤추듯 흔들리는 크지 않은 전투함선의 수수한 갑판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과 해병들이 찍은 기념사진, 최고사령관과 평범한 병사들이 한구분대의 전우들인양 한덩어리로 어울려 찍은 그 사진은 우리 군대의 혼연일체, 우리 군인들에게 체현된 무적의 힘이 무엇인가를 뚜렷이 새겨주고있다.

천만년 전해갈 위대한 전우애, 동지애의 감동깊은 전설도 다름아닌 조국의 바다를 지켜싸우는 해군용사들의 영생의 삶과 더불어 태여났다.

온 나라가 다 아는 해군용사묘에는 만사람의 심장을 울리는 숭엄한 글발이 빛발치고있다.

《묘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 정 은》

한 나라의 령도자께서 이름없는 병사들의 묘주가 되여 자신의 귀중한 존함을 묘소의 돌에 새긴 일은 정녕 이 세상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력사, 그 어느 시대에도 있어본적 없다.

우리 해병들이 희생된 사실을 보고받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너무도 가슴이 아프시여 온밤 잠 못 이루시였다.

사랑하는 해군용사들을 찾아 멀고 험한 길을 한달음에 달려가시여 용사들의 돌사진을 하나하나 쓸어보시며 금시라도 일어나 반길것만 같다고, 사랑하는 아들들과 남편의 희생을 두고 눈물을 흘릴 부모들과 안해들을 생각하면 가슴에서 억장이 무너지는것만 같다고 하시며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그들의 심정이야 오죽하겠는가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쾅쾅 두드린다.

용사들의 결을 오래도록 떠나지 못하시며 이 동무들의 묘주는 내가 되겠소, 묘비에 나의 이름을 써넣으시오, 묘주의 이름까지 써놓아야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릴것 같소!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같은 전우애, 병사애가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의 바다초소를 굳건히 지키고 최고사령관의 전투명령을 목숨바쳐 집행한 해군용사들을 빛나는 영생의 모습으로 다시 태여나게 하지 않았던가.

한없이 위대하고 열렬한 사랑을 한몸에 받아안으며 우리의 전체 해군장병들은 조국의 바다를 지켜서있다.

영명하고 자애로우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품!

살아도 죽어도 그 품에 안겨있고 그 품속에서 전사의 생은 언제나 빛나리라는 영생의 철리를 간직한 용사들이 조국을 지키는 싸움길에서 두려울것이 무엇이며 주저할것이 그 무엇이랴.

오늘도 우리의 영용한 바다용사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만을 기다리고있다.

결전의 그 시각이 오면 침략자들을 모조리 수장해버릴 멸적의 의지로 불타는 영웅적조선인민군 해군무력은 우리의 바다에 높이 솟은 조국결사수호의 억센 성벽이다.

본사기자 허명숙

## 평성시 역전동 김혜숙동무의 가정에서

# 원군길에서 찾는 참된 삶의 보람

얼마전 취재길에서 만났던 한 녀성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50대의 그 녀성은 평성시 역전동에서 살고있는 인민봉사총국 아래단위 로동자인 김혜숙동무였다. 6년전부터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꾸준히 원군길을 걸어온 그의 자욱마다에는 무심히 들을수 없는 가슴뜨거운 사연들이 깃들어있었기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체 인민이 인민군대를 친혈육처럼 사랑하고 성심성의로 원호하는것은 결국 자기 아들딸들을 사랑하고 도와주는것입니다.》**

김혜숙동무는 전쟁로병인 아버지로부터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있었던 전투이야기들을 자주 들으며 자랐다. 그는 전세대들이 피로써 지켜낸 소중한 조국을 위한 길에서 아버지처럼 살리라 속다짐하며 삶의 하루하루를 빛내여왔다.

김혜숙동무는 병사들을 찾아 선군혁명령도의 길에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활동소식에 접할 때마다 자책이 갈마드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받들어 원군길에 나설 결심을 하였다.

남편인 최찬길동무도 정말 좋은 생각을 했다고, 자기도 힘껏 돕겠다고 하면서 적극 지지해나섰다. 그리하여 김혜숙동무는 시내주변에서 살고있는 두 동생의 집울타리안에 돼지우리들을 번듯하게 지어놓고 많은 새끼돼지들을 넣었다.

직장일을 하면서도 원군사업을 위해 애쓰는 언니의 마음에 감동된 김혜순, 김혜옥동무들은 돼지기르기에 자기들의 지성을 다 바쳤다. 그해 김혜숙동무는 품들여 키운 돼지들과 함께 많은 원호물자들을 마련하여 군인들에게 보내주었다.

그가 성의껏 마련한 원호물자를 가지고 어느 한 중요대상건설장을 찾아갔을 때였다. 군인건설자들이 《어머니!》라고 부르며 그를 반겨맞아주었다. 김혜숙동무의 눈앞에는 군인들모두가 친자식들의 모습으로 안겨왔다.

(군인들의 어머니로 한생을 살리라.)

김혜숙동무의 가슴속에는 이런 결심이 바위처럼 자리잡혔다.

그는 원군길에서 참되게 사는 멋을 느꼈다.

어느덧 그가 걷는 사회와 집단을 위한 참된 애국의 길은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과 희천발전소건설장,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 위성과학자거리건설장을 비롯하여 나라의 곳곳에로 이어졌다.

언제인가 김혜숙동무가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일이 있었다. 그때 면회를 왔던 친척들은 물론 직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퇴원을 서두르는 그에게 입원치료를 더 받을것을 권고했다. 그러자 김혜숙동무는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자리에 누워있느라면 군인들의 모습이 계속 떠오르는걸 어쩌겠어요.》

자기가 걷는 원군길이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받드는 충정의 길이고 조국의 부강을 위한 애국의 길임을 누구보다 심장으로 새겨안고 사는 김혜숙동무였다.

자기의 가정보다 조국을 먼저 생각하고 병사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애국의 마음은 보석처럼 빛을 뿌리기마련이다. 지난 4월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 깨끗한 지성을 바친 김혜숙동무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였다.

우리에게 김혜숙동무는 말하였다.

《진정한 삶의 보람이 어디에 있는가를 저는 원군길에서 똑똑히 절감하였습니다.》

김혜숙동무와 그의 가정은 조국을 지키고 빛내이는 길에서 삶의 흔적을 뚜렷이 남길 불타는 마음을 안고 오늘도 애국의 한길을 곧바로 걷고있다.

본사기자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 나이제리아 보르노주정부 비서일행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4일 지다 바바 아흐메드 나이제리아 보르노주정부 비서와 일행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손님들은 인류자주위업수행에 쌓아올리신 거대한 업적으로 하여 오늘도 만민의 다함없는 칭송을 받으시는 절세위인들에 대한 경모의 정을 담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 보천보홰불상체육경기대회 개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지휘하신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승리기념일에 즈음하여 보천보홰불상체육경기대회가 개막되였다.

평양과 평성, 함흥, 남포 등지에서 진행되는 이번 경기대회에서는 축구, 배구, 롱구, 탁구, 마라손을 비롯한 30여개 종목의 경기들이 벌어지게 된다.

보천보홰불상체육경기대회 개막식이 4일 혜산경기장에서 진행되였다.

개막식에는 관계부문 일군들, 체육인들, 혜산시내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김병식 체육성 부상이 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올해신년사와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정신을 높이 받들고 전체 인민이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기 위한 장엄한 투쟁을 벌려나가고있는 시기에 경기대회를 가지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체육경기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과 감독들이 평상시에 련마해온 우리 식의 체육기술과 전술체계를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종목별체육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우리 조국을 하루빨리 체육강국으로 빛내이는데 적극 기여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어 체육인들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축구경기가 진행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사회주의증산경쟁을 힘있게 벌리며 석탄산을 더 높이 쌓아갈 열의에 넘쳐있다.
—2.8직동청년탄광에서—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 혁명의 꽃을 피우는 밑거름

## 평안북도탐사관리국 로동자 홍호일동무

《그 나이에 아직도 글을 씁니까?》

우리의 물음에 영예군인 김영림로인은 달리던 펜을 잠시 멈추었다.

올해 나이 70살, 신의주시에 살고있는 그는 주변사람들속에서 영예군인작가로 불리우며 존경받고있다. 이윽하여 영예군인이 말하였다.

《글은 나이로 쓰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혁명의 꽃을 변함없이 피워가라고 말없이 떠밀어주고 도와주는 고마운 사람들을 생각하면 오히려 내 열정이 부족한것만 같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비꼈다.

영예군인을 위해주는 그 많은 사람들속에는 평안북도탐사관리국 로동자 홍호일동무도 있다.

8년전 어느날 김영림동무의 집으로는 한 낯모를 사람이 찾아왔다.

《좋은 글을 쓰는 영예군인동지를 알게 되여 기쁩니다. 영예군인동지의 글을 읽고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가까이에 살고있는 운전사라고 자기 소개를 한 그는 홍호일동무였다. 이날 성의껏 마련한 식료품이며 건강에 좋은 보약재를 안겨주며 힘을 주는 그의 진정은 영예군인을 감동시켰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홍호일동무의 발걸음은 더욱 잦아졌다. 휴식일에는 안해와 아들, 딸, 며느리까지 앞세우고 찾아와 가정에 웃음꽃을 피우기도 하였다.

그후 영예군인가정은 여러번 집을 이사하였다. 영예군인의 집과 홍호일동무의 집은 점점 거리가 멀어졌지만 이들사이의 정은 더욱 가까와졌다.

언제인가는 표창휴가를 받은 홍호일동무의 아들 홍철동무가 군복을 입고 찾아와 영예군인을 더없이 기쁘게 하였었다. …

한동안 추억에 잠겼던 김영림로인은 다시 펜을 잡았다.

《고마운 그 마음, 그 기대를 잊지 않고 당을 위해, 조국을 위해, 후대들을 위해 한편이라도 좋은 글을 쓰고싶은 마음뿐입니다.》

본사기자 김호혁

# 농업전선을 고무추동하기 위해 교육부문도 떨쳐나섰다

서해곡창 연백벌이 들끓고있다.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연백벌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혁명적기세에 발을 맞추어 과학농사열풍을 일으키며 포전마다에 탐구의 열정을 바쳐가는 사람들도 있다. 김제원해주농업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다. 이들의 헌신적인 일본새와 열정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을 지켜선 이곳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올해에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농업을 주타격방향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하여야 합니다.》**

지난해말 대학에서는 교원, 연구사들이 도안의 여러 협동농장들에 달려나가 한해동안 진행한 연구성과도입정형을 총화하면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다음해에 새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대학에서는 올해에도 도농촌경리위원회와의 긴밀한 련계밑에 도안의 협동농장들을 과학기술로 적극 돕기 위한 작전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협의회를 통하여 새로 도입해야 할 제안들에 대한 심의가 충분히 진행되였으며 당조직의 지도밑에 현지에 파견할 교원, 연구사력량이 편성되고 이들에 대한 기술강습도 더 심화시켜나갔다.

올해 대학에서는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주목되는 문제의 하나가 논벼영양단지모 소식재배기술도입이다. 수천정보에 달하는 논에 도입해야 하는 이 재배기술은 논벼의 생물학적특성을 충분히 발현시켜주어 정보당 수백kg, 최고 1t의 소출을 더 내게 하며 씨뿌리는 공정에서 모판면적과 모판자재를 훨씬 줄이고 종자도 수십kg이나 절약할수 있게 하는 경제적효과성이 높고 실리적인것이다.

이 재배기술을 도안의 협동농장들에 일반화하기 위해 동농장들에 수백t의 비료를 생산하여 보내주었다.

여기에는 과장 백성국, 강좌장 김병식동무들의 노력이 크게 안받침되여있다.

농업생산에 쓰일 풍부한 린회석과 린회토매장원천을 찾아내고 현지에서 광물비료생산을 적극 다그쳐 농촌들에 보내주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대학에서 도입해주고있는 나노살균제도 벼종자처리에서 그 조작이 간단하고 로력을 절약하는것으로 하여 협동농장들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논벼의 재배공정에도 널리 쓰이는 나노살균제는 깨알잎마름병, 흰잎마름병, 깜부기병 등을 구제하는데서 효과가 높다.

대학에서는 현재 수만정보의 논에 쓰일 나노살균제를 확보하여 여러 협동농장들에 보내주었으며 현지에서 기술일군들의 강습을 조직하는것과 함께 나노살균제를 도입하는데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해주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대학에서는 이미 개발한 휴대용종합토양분석기를 제작하여 협동농장들에 보내주기 위한 통이 큰 목표도 세웠다.

신의주시는 물론 의주, 염주, 룡천, 철산, 태천군에 파견된 교원, 연구사들의 과학연구활동이 더욱 강화되고있다. 이들은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농업전선을 지켜섰다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생태지구별특성에 맞는 품종을 선택하고 재배공정에서 비료의 시비량과 시비시기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결정하도록 하는 사업 등 전반적인 영농공정을 추진하는데서 큰 역할을 하고있다.

이동식벼탈곡기 등 농기계제작사업을 돕기 위해 염주군에 달려나간 학부장 김민우동무와 룡천군의 과학기술농사를 위해 애쓰는 허인철동무를 비롯한 교원, 연구사들은 농장일군들과 기술자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농업생산에 이바지하는 연구성과들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에 자신들의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김광철, 배명진동무를 비롯한 대학의 일군들은 협동농장들에 파견된 교원, 연구사들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면서 그들이 과학연구활동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고있다.

서로가 한마음한뜻이 되여 농촌을 도와주는 대학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도안의 농업근로자들을 알곡증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본사기자

# 연백벌에 바쳐가는 탐구의 열정

## 김제원해주농업대학 교원, 연구사들

지난 기간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고심어린 탐구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여러 협동농장들의 지대적특성에 맞게 이 재배기술을 도입하는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한 교원, 연구사들이 신심을 안고 이른봄부터 연백벌의 협동농장들에 달려나갔다.

이뿐이 아니다. 지난해 도입하여 은을 낸 두층갈이보습에 의한 논마른써레치기면적을 늘이며 살초제에 의한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김잡이률을 더 높이고 생산원가를 절약할수 있는 논벼용혼합살초제의 도입면적을 올해에는 수만정보로 늘일것을 계획하였다.

이밖에도 이삭이 잘 여물게 하면서도 풀림성이 높은 린회토—유기광물질비료의 생산도입, 벼와 강냉이의 뿌리생육을 촉진시켜 씨붙임률과 모살이률을 훨씬 높여주는 유기활성제를 생산하여 협동농장들에 도입해주기 위한 사업 등도 있다.

이 과제들을 안고 대학교원, 연구사들이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가 과학연구활동을 줄기차게 벌리고있다.

현지에서 농업근로자들에게 기술강습도 해주며 영농공정마다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이고있는 대학교원, 연구사들의 가슴가슴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주타격방향인 농업전선을 지켜선 과학기술의 전초병이라는 높은 자각과 책임감으로 불타고있다.

연안군에 달려나간 강좌장 리용호, 실장 박사, 부교수 김진호, 연구사 김영일동무들이 협동농장일군들과 기술자들과 힘을 합쳐가며 연구성과들을 도입하기 위해 애쓰고있다. 두층갈이보습을 완성하여 농업생산에 크게 도움을 준 실장 리연호동무도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제작하기 위해 연안군농기계작업소의 로동계급과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가고있다.

배천군에 달려나간 교원들인 리진혁, 리남철동무들과 연구사 강용철동무도 농업생산에 이바지하는 연구성과들을 도입하는데 심혈을 쏟아붓고있다.

도안의 여러 협동농장들에 달려나가 연구성과들을 도입해주는데 뜨거운 열정과 진심을 바쳐가고있는 강좌장 박사, 부교수 송광천동무의 노력은 농장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열의를 더욱 높여주고있다. 서승철, 리승철동무를 비롯한 대학일군들과 과장 현선진동무의 빈틈없는 조직정치사업은 연백벌에 달려나간 교원, 연구사들을 힘있게 고무해주고있다.

황해남도에서 농사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김제원해주농업대학이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데 많이 달려있다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간곡한 유훈을 새겨안고 오늘도 포전들을 누비며 과학농사의 열풍을 일으켜가는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 이들이 연백벌에 바쳐가는 열정과 땀방울은 그대로 풍성한 열매를 안아오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있다.

본사기자 공로혁

# 방조자가 아니라 주인이 되여

## 신의주농업대학에서

신의주농업대학에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주타격방향인 농업전선에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들을 도입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현대의 농사는 과학농사이며 모든 영농작업이 기술작업입니다.》**

대학에서 농업생산에 이바지하는 과학연구사업과 현장에서의 기술지도를 밀접히 결합시켜나가는 과정에 거두고있는 성과는 크다.

규소카리비료를 도에 흔한 원료를 리용하여 자체의 힘으로 생산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놓은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여러 지대를 답사하면서 풍부한 카리장석매장지를 찾아내고 어느 한 공장에서 쓸모없이 버리던 폐설물과 함께 카리장석을 배합하여 규소카리비료를 생산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지난해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이 비료를 시험도입한 결과 논벼의 소출을 훨씬 높일수 있었다. 이에 기초하여 도에서는 올해에 수천t의 규소카리비료를 생산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이미 여러 협동농장들에 수백t의 비료를 생산하여 보내주었다.

여기에는 과장 백성국, 강좌장 김병식동무들의 노력이 크게 안받침되여있다.

농업생산에 쓰일 풍부한 린회석과 린회토매장원천을 찾아내고 현지에서 광물비료생산을 적극 다그쳐 농촌들에 보내주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대학에서 도입해주고있는 나노살균제도 벼종자처리에서 그 조작이 간단하고 로력을 절약하는것으로 하여 협동농장들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논벼의 재배공정에도 널리 쓰이는 나노살균제는 깨알잎마름병, 흰잎마름병, 깜부기병 등을 구제하는데서 효과가 높다.

대학에서는 현재 수만정보의 논에 쓰일 나노살균제를 확보하여 여러 협동농장들에 보내주었으며 현지에서 기술일군들의 강습을 조직하는것과 함께 나노살균제를 도입하는데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해주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대학에서는 이미 개발한 휴대용종합토양분석기를 제작하여 협동농장들에 보내주기 위한 통이 큰 목표도 세웠다.

신의주시는 물론 의주, 염주, 룡천, 철산, 태천군에 파견된 교원, 연구사들의 과학연구활동이 더욱 강화되고있다. 이들은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농업전선을 지켜섰다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생태지구별특성에 맞는 품종을 선택하고 재배공정에서 비료의 시비량과 시비시기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결정하도록 하는 사업 등 전반적인 영농공정을 추진하는데서 큰 역할을 하고있다.

이동식벼탈곡기 등 농기계제작사업을 돕기 위해 염주군에 달려나간 학부장 김민우동무와 룡천군의 과학기술농사를 위해 애쓰는 허인철동무를 비롯한 교원, 연구사들은 농장일군들과 기술자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농업생산에 이바지하는 연구성과들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에 자신들의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김광철, 배명진동무를 비롯한 대학의 일군들은 협동농장들에 파견된 교원, 연구사들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면서 그들이 과학연구활동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고있다.

서로가 한마음한뜻이 되여 농촌을 도와주는 대학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도안의 농업근로자들을 알곡증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본사기자

# 가치있는 연구성과들

## 평양남새전문학교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과학연구사업을 떠난 교육사업이란 있을수 없으며 교육사업은 과학연구사업과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진행되여야 발전할수 있습니다.》**

수도시민들을 위한 남새생산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받들고 평양남새전문학교에서 남새생산을 늘이기 위한 연구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 많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학교에서는 올해에 남새생산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능력있는 교원들로 연구력량을 뭇고 현실에서 은을 낼수 있는 연구과제해결에 큰 힘을 넣었다. 김영순, 장영철동무를 비롯한 학교의 일군들은 시험재배에 필요한 자재보장을 앞세우고 과학기술자료들을 확보하여 교원들이 연구사업에서 응당한 성과를 거두도록 잘 이끌어주고있다.

학교에서는 우선 연료를 절약할수 있는 토벽식박막온실을 리용하여 사철 남새를 생산할수 있는 재배방법을 완성하는데 힘을 넣었다.

이 과정에 온실조건에서 시금치, 부루, 쑥갓, 파를 비롯한 여러 남새작물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생산하며 봄철에 야외의 온상, 랭상조건에서도 오이, 호박, 도마도를 수확할수 있는 재배방법을 확립하였다. 또한 이른봄에 열매남새들인 수박, 참외를 심어 5월부터 7월 상순사이에 안전하게 수확할수 있는 연구성과도 이룩하였다.

이와 함께 밭에서 고추, 파, 시금치, 당콩, 감자, 붉은 봄무우의 여섯그루배합형의 재배방법을 확립하였으며 가을철에 배추와 무우밭에 메밀사이그루를 적용함으로써 병충해를 막고 수확량을 훨씬 높일수 있게 하는 연구과제도 완성하였다.

호박, 수박, 오이, 도마도를 비롯한 열매남새작물들에 인공적으로 제조한 성장호르몬을 리용함으로써 수확시기를 수십일이나 앞당길수 있게 하여 남새밭의 리용률을 훨씬 높일수 있게 한 연구성과 또한 주목되고있다.

지금 학교에서는 뿌리발육이 좋은 떡호박포기에 재배용품종을 접하는 오이접모기르기에 대한 연구, 새 품종 잔디밭을 조성하고 잔디기르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 연구에 큰 힘을 넣고있다.

이 학교 교원들은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연구성과들을 제때에 현실에 도입하기 위해 더욱 분발하고있다.

본사기자

#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 꽃피는 돌격대원들의 랑만에 넘친 생활

## 우리의 이름은 청춘

### 평안남도려단 청년돌격대원들

언제 어느때나 다 그러하듯이 청년들은 시대의 선구자, 개척자의 영예를 안고 산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희망과 포부가 크고 희열과 랑만넘친 생활로 아름다우며 혁신과 위훈창조로 그 이름도 빛나는 청춘,

그들속에 평안남도려단 청년돌격대원들도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실천투쟁속에서 혁명가로 자라나는 인간의 성장과정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혁명적인 생활이 있고 혁명에 대한 충실성과 백절불굴의 투지, 미래에 대한 신심과 랑만과 같은 고상한 사상감정이 깃들어있게 된다.》**

얼마전 우리가 평안남도려단을 찾았을 때 려단의 정치부장 길학권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려단의 진격로의 앞장에는 항상 우리 청년들이 서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해 하주리의 인공풀판조성때에도 그렇고 올해 축사건설에서도 청년들이 돌격대를 뭇고 대오의 앞장에서 진격로를 열었다고 말하였다.

그의 말을 들으며 우리는 청년돌격대의 대장으로 일하였던 리원진동무와 함께 려단의 여러 곳을 돌아보았다.

《저기 보이는 하주리 인공풀판이 지금은 푸르지만 그 등판을 개간할 땐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떼였다. 그리고는 생각에 잠겨 조용히 입속으로 노래를 부르는것이였다.

나의 아버지 청춘시절
강선의 로앞에서 흘렸네
…

잊지 못할 추억을 안고 등판을 바라보던 그는 이 노래는 힘겨울 때마다 청년돌격대원들이 부르군 하던 노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보람찬 청춘시절을 조국을 위해 아낌없이 바친 아버지, 어머니세대들처럼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에서 위훈을 떨쳐 청춘의 자서전에 떳떳이 새겨넣자는것이 청년돌격대원들의 한결같은 의지였다고 하였다.

그 신념, 그 의지를 안고 지금도 청년돌격대원들은 막아서는 난관을 앞장에서 헤치며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에 청춘의 열정을 남김없이 바치고있다고 덧붙여 말하였다.

이윽고 그는 하주리 인공풀판을 조성하던 때의 일을 이야기하였다.

한주일동안 진행된 인공풀판조성사업은 그야말로 전투였다.

청년돌격대원들이 처음 하주리등판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허리를 치는 잡풀들과 서로 뒤엉킨 가둑나무, 떨기나무가 한벌 쭉 깔려있었다. 그런데다가 땅은 경사지여서 뜨락또르를 비롯한 기계화수단들도 들어설수 없었고 삽을 박으면 몇㎏이 잘될 진흙덩이가 묻어올라오는 형편이였다. 어떤 돌격대원들은 너무나도 힘에 부치여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이때 어디선가 돌격대원들의 심장을 울리며 기타소리와 함께 노래가 들려왔다.

…

나의 어머니 청춘시절
해주와 하성에서 흘렸네
첫 렬차 떠나보내며
울고웃던 그 처녀가
나의 어머니였네
…

평성시대대 돌격대원 박대운동무가 부르는 노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기타가 해빛에 반짝이였다. 언제나 청년돌격대원들의 다정한 벗이 되여 기쁠때도, 어려울 때도 함께 있은 기타였다.

－동무들, 일어나자. 이쯤 한 난관앞에 주저앉는다면 우리를 어찌 미래를 앞당기는 개척자라고 하겠는가. 노래를 부르자.

그들은 이렇게 그 땅에 삽을 힘있게 박았다. 용솟음치는 청춘의 힘과 열정, 랑만에 넘친 노래로 그들은 막아서는 난관과 시련을 웃으며 뚫고나갔다.

때로 등판에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며, 밤이면 우등불을 피워놓고 삽날에 불이 번쩍 일게 일손을 다그쳤다.

기승을 부리는 바람에 손과 얼굴이 터갈라지고 온몸은 까드라들어도 그들은 그날작업과제를 끝내기 전에는 숙소로 돌아가지 않았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하기 전에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보지 말자고 웨치며 발전소건설을 다그쳐간 인민군군인들처럼 이곳 청년돌격대원들도 원수님앞에 맹세다진 공사기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한몸을 우등불처럼 불태웠다.

어떤 날에는 꽁꽁 얼어붙은 손에 장알까지 박혀 제대로 움직일수가 없어 처녀돌격대원들이 입에 떠넣어주는 밥을 먹을 때도 있었다.

《정말 영화에서나 보았던 일이였습니다.》

리원진동무는 이렇게 말하며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미래를 앞당겨오는 개척자, 선구자의 영예를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간직하고 일하였다고, 그 나날 자기들이 부른 그리움의 노래, 피끓는 청춘의 노래가 얼마였는지 모른다고 절절히 말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노래로 난관을 헤쳐갔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심장을 끓이며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갔다. 도로를 번듯하게 닦을 때에도, 상갑리에 인공풀판을 조성할 때에도 그들은 언제나 청춘의 기개를 남김없이 발휘하며 노래를 불렀고 락천적인 생활을 꾸려나갔다.

자기들의 심장의 박동을 잠들줄 모르고 지칠줄 모르며 거세차게 흘러가는 세포등판시간에 맞추고 청춘의 하루하루를 위훈으로 새기였다.

불타라 심장아 어머니조국위해, 달리자 전속으로 밝은 미래 향하여!

마음속웨침을 심장으로 터치며 조국을 위해 청춘을 바친 아버지, 어머니들처럼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릴 오직 한 생각을 안고 끝없이 달리고있는 돌격대원들,

그 한사람한사람의 이름을 굳이 물어선 무엇하랴. 그들모두가 당의 부름이라면 물과 불속에도 서슴지 않고 뛰여드는 그 이름도 빛나는 청춘들이기에.

청춘!

언제 어디서나 진격의 나팔수 마냥 대오의 앞장에서 나아가는 우리 청춘들의 앞길은 혁명적인 랑만과 정서로 더 아름다울것이리라. 노래를 부르며 난관을 헤쳐갈 자기들의 날과 달을 청춘의 자서전에 뚜렷이 남기리라.

본사기자 오은별

## 소행자료기록부에 비낀 모습

### 정보산업지도국돌격대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동지들사이의 사랑이 곧 단결이며 동지애가 진실하고 뜨거울수록 일심단결이 더욱 순결하고 공고해집니다.》**

이천군 읍에서도 한참이나 더 가야 했다. 푸른 숲 우거진 산이 우뚝하니 보이고 골짜기로 맑은 물 흘러내리는 기슭에 정보산업지도국돌격대가 자리잡고있다.

대장 강능택동무의 안내를 받으며 우리가 병실에 들어서니 알뜰하게 꾸려놓은 방에는 돌격대원들의 배낭이며 침구류들이 질서있게 놓여있었다.

문득 우리의 눈앞에 벽에 걸려있는 소행자료기록부라는 책이 안겨왔다.

《우리 돌격대원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새겨넣고싶어 만들어놓은것입니다.》

돌격대정치일군인 안현철동무의 말을 들으며 우리는 책장을 번져갔다.

…

《3월 12일 소대장 김경수동무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보니 내옆에 누워있던 그가 보이지 않는것이였습니다. 세목장에서 소리가 나기에 가보니 경수동무가 소대원들을 위해 더운물을 보장하느라 남먼저 일어나 불을 지피고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은 벌써 한두번이 아니였습니다. 오후작업 쉴참에는 가정에서 성의껏 마련하여 보내온 지원물자도 동무들에게 다 나누어주었습니다. 우리들의 웃음속에서 기쁨을 찾는 경수동무를 자랑하고싶습니다. 기록자 우상훈

…

3월 23일 저는 오늘 조일광동무의 소행에 몹시 감동되였습니다. 오전 자연풀판정리작업을 할 때였습니다. 일광동무는 박혜성동무가 작업도중 나무등걸에 긁히워 신발이 터진것을 보고 그자리에서 새것이나 다름없는 자기의것을 벗어주었습니다. 혜성동무가 거듭 사양하였지만 끝내 그의 발에 신발을 신겨주며 꼭 맞는다고 기뻐하는 일광동무의 모습을 보며 저는 감동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기록자 한진운

…

5월 8일 안수영동무는 오늘 중대식사보장을 위해 바쁜 속에서도 축사건설장에 달려나와 우리와 함께 일했습니다. 동무들이 들어가 휴식하라고 떠밀었으나 그는 오히려 웃으며 혼석운반경기를 하자고 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랜 시간 현장에서 일하고도 저녁식사를 보장한 후에는 리춘영, 정진옥동무들과 함께 세멘트를 부리우는 작업에 나갔던 동무들의 어지러워진 작업복도 밤을 새워가며 손질해주었습니다. 안수영동무를 널리 자랑합니다. 기록자 변봉록

…

5월 30일 최종선동무는 며칠전 축사건설을 하던중 김성혁동무가 발을 상하자 가지고있던 약도 발라주고 상처가 인차 아물수 있게 붕대를 정히 감아주었습니다. 전번에도 그는 앓는 한 동무를 위해 밤새도록 머리맡에서 간호를 해주었고 펄펄 끓는 붕어탕을 안고와 그 동무의 입에 떠넣어주었습니다. 일에서나, 동무들을 대하는데서나 본받을 점이 정말 많습니다. 기록자 김금철》

…

보면 볼수록 동지들을 위하고 집단을 위하는 돌격대원들의 뜨거운 마음을 속속들이 다 느낄수 있는 책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자연개조구상을 높이 받들고 세포전역으로 달려나온 돌격대원들, 한집안, 한식솔이 되여 전투장마다에서 위훈을 세우고 화목한 생활을 가꾸어가는 그들의 깨끗한 모습을 그려보며 우리는 확신하였다.

서로 돕고 이끌며 위훈과 랑만을 꽃피워가는 그들이 제일먼저 승리자의 결승테프를 끊으리라는것을.

본사기자 김진욱

## 특색있는 원주필화

### 문화성돌격대에서

문화성돌격대를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돌격대원들의 랑만에 넘친 생활과 정서를 보여주는 특색있는 원주필화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노래도 많고 웃음도 많은 돌격대원들의 열정넘친 생활, 뜨거운 동지애와 혁명적일본새를 다 말해주는 특색있는 원주필화, 그것은 그대로 돌격대원들의 정서이고 위훈이며 랑만이였다.

원주필화 《새벽, 4시 30분》은 이른새벽이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상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돌격대원들의 모습을 형상하였다. 이 원주필화에는 절세위인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으로 가슴 불태우며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돌격대원들의 고상한 정신세계가 진실하게 비껴있다.

어깨에는 풀씨가 가득 담긴 마대를 메고 손에는 물바께쯔를 들고 풀판으로 향하는 돌격대원의 모습을 보여준 원주필화 《두몫, 세몫》은 하루작업계획을 넘쳐 수행할 돌격대원들의 드높은 열의를 형상하였다.

원주필화 《책임감》은 누가 보건말건 돌격대원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집짐승관리를 책임적으로 해나가는 모습을 담고있다.

깊은 밤 땀에 젖은 돌격대원들의 작업복을 스스로 말아 빨아주고있는 녀성돌격대원을 형상한 《고운 마음》 등은 뜨거운 동지애의 세계를 진실하고 생동하게 반영하였다. 이밖에도 혁명적랑만과 정서의 세계를 보여주는 화폭들은 많다.

원주필화들에서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높이 받들고 보다 아름다울 래일을 위해 위훈을 새겨가는 문화성돌격대원들의 혁명적이며 랑만에 넘친 생활기풍을 감명깊게 느낄수 있었다.

본사기자

## ◇ 전투기록장에 또 한명의 혁신자를! ◇

마철운, 박정철, 김승일, 김경화동무를 비롯한 **최고검찰소돌격대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한자리에 둘러앉았다.

그들은 또 한명의 혁신자를 전투기록장에 등록한다.

한명 또 한명 혁신자가 늘어날 때마다 이곳 돌격대의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받드는 길에 삶의 흔적을 뚜렷이 남기고있는 돌격대원들의 위훈에 대해 돌이켜보군 한다.

나는 오늘의 이 투쟁에서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누구나 이 물음에 자신을 세워보며 그들은 먼 후날 세포전역의 혁신자였다고 후대들앞에 떳떳이 말할수 있게 후회없이 살리라고 마음속결의를 가다듬는다.

－나날이 늘어나는 혁신자들의 대오속에 나도 서리라.

이런 마음으로 최고검찰소돌격대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어제도 그러했던것처럼 오늘도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미래를 앞당겨오는 개척자, 선구자의 영예를 빛내여가고있다.

다음번 전투기록장에 오를 혁신자는 과연 누구인지.

이런 승벽심을 안고 앞서거니뒤서거니하며 대오의 맨 앞장에서 달려가는 돌격대원들의 위훈과 랑만넘치는 생활은 얼마나 좋은가.

앞으로 더 많은 혁신자들의 사진이 전투기록장을 꽉 채울것이니 그들이 걸어온 위훈의 길을 합치면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의 나날을 다 알수 있으리라.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광혁

## 웃음도 노래도 많은 정든 집

### 자강도려단 동신군대대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랑만이 없이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나갈수 없고 미래를 위하여 한몸바쳐 투쟁할수 없습니다.》**

한낮의 찌는듯 한 무더위를 헤치며 우리가 동신군대대에 도착한것은 점심시간이였다.

붉은 기발이 펄펄 휘날리는 건물은 겉보기에도 아담하였다.

돌격대원들이 정든 고향집을 방불케 한다는 숙소에 들어서니 구수한 토장국냄새가 코를 찔렀다. 잠시 땀을 들인 우리는 서둘러 대대의 숙소를 돌아보았다. 려단적으로 일도 잘하고 혁명적인 생활기풍확립에서도 모범인 동신군대대를 한시바삐 보고싶어서였다.

우리는 먼저 병실들을 돌아보았다. 가쯘히 걸린 옷들이며 차곡차곡 쌓아올린 침구류들, 향긋한 냄새가 풍기는 꽃병…

알뜰하고 깐진 살림살이가 엿보이는 병실들이였다. 그옆에 잇달린 세목장도 우리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었다.

우리는 건물의 벽에 붙인 생일일람표며 주간식사계획표, 일과표 등을 일일이 보고나서 식당에 들어섰다.

돌격대원들의 식사준비로 드바쁜 시간을 보내고있던 료리사가 우리에게 눈인사를 보내였다.

김이 문문 나는 토장국이며 산나물볶음을 비롯한 갖가지 찬들과 시원한 오이랭국…

돌격대원들을 위하는 뜨거운 마음이 식탁마다에 어려있었다.

《뭐니뭐니해도 우리 대대의 자랑은 축산을 잘한것이랍니다.》

대대장 오영만동무는 이렇게 말하며 우리를 돼지며 닭, 오리, 염소 등이 욱실거리는 축사로 이끌었다. 그는 늘 돌격대원들의 후방사업을 위해 지성을 기울이는 관리원 림동국동무의 노력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돌격대원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 애쓴 그의 노력에 대하여 생각하니 우리의 마음도 후더워올랐다. 갖가지 기공구들이 가득찬 창고는 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었던가.

그 기공구들이 대대의 보다 큰 위훈창조에 기여할것이라는 생각에 잠겨있는데 문득 우리의 귀전에 우렁찬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오전작업을 끝내고 숙소로 돌아오는 돌격대원들이 부르는 노래소리였다. 그 노래소리를 듣느라니 동신군대대에 려단적으로 소문난 꾀꼴새들이 많다고 하던 려단장의 말이 불쑥 떠올랐다.

그 이야기를 하자 정치지도원 김광헌동무는 성수가 나서 자랑을 터놓았다. 김은옥동무를 비롯한 노래 잘하는 돌격대원들에 대해, 결따라 타악기명수 황철민동무와 요술을 잘해서 소문이 자자한 양영남동무 그리고 대대에 체육을 잘하는 대원들도 많다는 등 자랑이 끝이 없을상싶었다.

일 잘하는 대대에 재간둥이들도 많다니 정말 자랑할만 한 대대였다.

자랑이 많은 대대,

하루작업이 끝난 저녁이면 이곳에서 돌격대원들이 떠들썩 춤판을 펼쳐놓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춘다니 돌격대생활은 얼마나 좋은가.

희열에 넘친 생활을 꽃피우고있는 이곳 대대 돌격대원들의 모습을 그려보며 우리는 동신군대대를 떠났다.

본사기자

# 미제는 조선인민의 백년숙적

### 중앙계급교양관을 찾아서 (1)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이며 우리 혁명의 주되는 투쟁대상입니다.》**

이 땅에 6월의 일력들이 번져지고있다. 해마다 6월이 오면 우리 인민은 미제가 침략전쟁의 불을 지른 그날을 생각하며 천백배의 증오와 복수심을 더욱 가다듬고있다.

얼마전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철천지원쑤이며 백년숙적인 미제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안고 중앙계급교양관을 찾았던 우리는 참관자들과 함께 미제가 우리 인민에게 들씌운 죄악의 력사를 폭로하는 반미교양편의 전시장에 들어섰다.

전시장의 입구에는 백수십년전부터 우리 나라에 침략의 마수를 뻗쳐온 미제의 죄행을 증명하는 침략선 《셔먼》호(모형)와 그 배에 설치되였던 대포와 닻줄(모형)이 놓여있었다.

《이 〈셔먼〉호는 본래 1861년에 건조되여 미국남북전쟁에 참가한 군함으로서 전쟁이 끝나자 악명높은 사령관 셔먼놈의 이름을 붙인 당시로서는 가장 발전된 무장함선이였습니다.

하루빨리 조선을 타고앉으려는 야망을 품고있던 미제가 로골적인 강도적무력침공으로 우리 나라에 기여든것은 1866년 〈셔먼〉호의 침공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우리 나라에 대한 미제의 침략이 시작되였습니다.》

강사의 해설을 듣는 우리의 가슴은 백수십년전부터 우리 나라를 먹어보려고 함선까지 끌고 침략과 략탈의 길에 나선 미제에 대한 치솟는 증오로 불타올랐다.

당시 《셔먼》호가 우리 나라에 침입한 목적은 군함과 대포소리로 봉건통치배들을 위협하여 불평등조약을 강요함으로써 조선침략의 길을 열어놓으려는데 있었다.

대동강하구에 기여든 《셔먼》호는 다음날부터 대동강을 거슬러오르기 시작하였다.

평양부 관청에서 거듭 물러갈것을 요구하였으나 놈들은 오히려 정상적인 순찰임무를 수행하고있던 조선군대의 배를 습격하여 나포하였으며 양각도에 기여들어 살인략탈만행을 감행하는 등 온갖 날강도적인 행위를 다하였다.

김응우선생님의 지휘하에 떨쳐나선 평양인민들의 용감한 투쟁으로 파렴치하고 흉악하기 짝이 없는 미제침략자들은 대동강에 영영 수장되고말았다.

미제는 《셔먼》호의 운명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또다시 침략선들을 우리 나라에 들이밀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남연군의 묘를 도굴하는 미제침략자들의 사진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남의 나라에 기여들어 남연군의 묘를 도굴하는 미제승냥이들의 흉악한 낯짝을 보여주는 사진밑에는 이런 글발이 붙어있었다.

《이 사건(남연군묘도굴)은 세계해적사에서 그때까지 알려진 사건들가운데서 가장 비상한 사건의 하나였다.》 (상해주재 미국령사재판소 배심판사 헤이에스의 진술내용)

그 글을 읽어보는 참관자들모두가 증오와 격분으로 주먹을 틀어쥐였다.

인디안들의 피바다우에 솟아나 흑인들의 피와 땀으로 살쪄온 식인종의 무리들이였으니 놈들이 무슨짓인들 못했으랴. 이것을 통해서도 미제야말로 저들의 침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라는것을 똑똑히 알수 있었다.

미제의 침략행위는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계속되였다.

1871년 5월 미제는 5척의 군함과 80문의 대포, 1230여명의 침략군으로 구성된 《조선원정함대》를 무어가지고 강화도에 기여들었다.

그러나 손돌목과 초지진, 광성진 등 여러 전투들에서 련속 참패를 당하였다.

력사에서 《신미양요》라고 불리운 1871년 미제의 무력침공은 놈들의 수치스러운 참패로 끝났다.

전시되여있는 《척화비》(모형)에는 이런 글이 씌여져있었다.

《서양오랑캐들이 침범하니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것은 나라를 파는것이다. 병인년에 이 글을 지었고 신미년에 비에 새겨 전국에 세운다. 우리의 천만년 자손들에게 이것을 경고하노라.》

글발을 더듬는 우리의 가슴속에 미제침략자들과는 오직 피의 결산만이 있을뿐이라는 각오가 더욱 굳어졌다.

1880년대에 이르러 미제는 아시아대륙에 대한 보다 대규모적인 침략을 준비하면서 그 길목에 있는 조선을 어떻게 하나 예속시켜 대륙침략의 발판을 닦아보려고 미쳐날뛰였다.

미제는 조선에서 침략지반을 닦기 위해 무엇보다먼저 예속적인 불평등조약을 체결하는것을 선차적인 문제로 내세웠다.

반미교양편에는 1882년에 놈들에 의하여 강압체결된 불평등한 《조미조약》에 대한 자료, 조선인민을 사상의식적으로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나라 도처에 례배당을 지어놓고 무저항주의와 숭미사대주의를 퍼뜨리던 침략의 길잡이인 미국선교사놈들이 사용하였던 각종 종교책들과 십자가, 목걸이 등 증거물들이 들어있는 전시대도 있었고 해방전 우리 나라에서 략탈해간 인적, 물적자원을 수자적으로 밝힌 자료들도 있었다.

미제가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야망을 품고 감행해온 이러한 죄행들은 참관자들의 치솟는 격분을 불러일으켰다.

참관자들모두가 백수십년전부터 침략과 략탈을 일삼으며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철천지원쑤인 미제에 대한 쌓이고쌓인 분노와 증오를 복수의 활화산으로 터쳐 침략자들을 한놈도 남김없이 모조리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멸적의 의지로 심장의 피를 끓이였다.

우리는 세월이 흐르고 강산이 변해도 미제의 침략적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력사의 진리를 더욱 깊이 새겨안으며 다음전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였다.

본사기자 조경철

백수십년전부터 우리 나라를 침략하기 위하여 온갖 죄악을 저지른 미제원쑤놈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으로 가슴 불태우는 참관자들 －중앙계급교양관에서－ 본사기자 찍음

# 자주적이며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는것은 진보적인류의 한결같은 지향

## 쁠럭불가담운동은 우리 시대의 위력한 자주력량

세계자주화위업은 자주와 평화,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력량의 주동적인 역할에 의해 실현되게 된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사회주의력량과 함께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제자주력량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진보적운동이며 제국주의와 대치하고있는 우리 시대의 위력한 혁명력량입니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책동을 물리치고 국제무대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해결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자주력량이다.

세계의 수많은 인구와 나라를 망라하고있는 가장 폭넓은 국제적운동으로 발전한 쁠럭불가담운동은 진보와 반동사이의 력량관계를 크게 변화시켰으며 온 세계의 자주화과정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쁠럭불가담운동은 국제관계문제를 발전도상나라들에 유리하게 해결하기 위한 투쟁에서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있다. 단결의 전통을 고수하고 발전시켰기에 쁠럭불가담운동은 자주시대를 힘있게 떠밀고나가는 위력한 력량으로 자라날수 있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자주와 평화, 친선단결을 지향하여 나아가는 나라들에 대한 자주권유린책동과 평화파괴책동을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힘의 정책에 기초한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실현을 위하여 미국은 저들의 모든 군사적잠재력을 동원하고있으며 유럽과 중동,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 강권과 전횡, 내정간섭적인 책동을 일삼고있다.

조선반도에서는 미국의 군사적위협이 날로 커가고있는 속에서 전쟁도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있다. 긴장상태를 끝장내고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공화국정부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반공화국압살책동과 핵전쟁연습을 더욱 로골화하고있다.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광란적인 전쟁소동과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감행하는 비정상적인 특대형도발행위들은 한계를 벗어나 수수방관할수 없는 위험천만한 지경에 이르고있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정세는 오직 자기 힘이 강해야만 정의와 평화를 수호하고 세계자주화위업도 추진할수 있으며 우리가 선택한 자주의 길, 선군의 길이 천만번 정당하다는것을 립증하여주고있다.

현실은 날로 로골화되고있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쁠럭불가담운동 성원국들의 역할을 높이고 성원국들의 단결과 련대성에 기초한 공동행동을 강화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쁠럭불가담운동 성원국들이 자주권수호를 위한 투쟁에서 단결과 련대성을 강화하면서 서로 지지하고 협력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단결과 련대성, 지지와 협력을 강화할수록 쁠럭불가담운동의 힘이 커진다. 제국주의자들이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자주권유린과 평화파괴책동을 벌리고있는 조건에서 운동성원국들이 서로가 힘을 합치고 단결하여 투쟁하는것은 쁠럭불가담운동을 장성강화하기 위한 기본조건으로 된다.

자주권존중, 령토완정, 내정불간섭의 원칙은 자주적이며 평화로운 새 세계를 지향하는 운동이 변함없이 견지해나가야 할 원칙이다.

자주권존중, 령토완정,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지켜야 운동성원국들사이의 관계를 자주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켜나갈수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과 이중기준정책, 내정간섭행위를 짓부셔나갈수 있다.

현시기 쁠럭불가담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자주권유린은 인권분야에서 가장 우심하게 나타나고있다.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엔인권무대에서는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정의와 진리가 무시되고 강권과 전횡이 득세하고있으며 발전도상나라들이 선택적인 공격대상으로 되고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해마다 유엔총회와 유엔인권리사회에서 우리 공화국을 비롯한 여러 발전도상나라들을 훼방하고 공격하기 위한 모략소동을 벌려놓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을 골라 없는 사실을 날조하여 정치적으로 걸고들면서 강행하는 인권소동은 자주적인 나라들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를 허물어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인권론의에서 정치화, 선택성, 이중기준이 종식되여야 하며 특정한 나라들의 정치적목적과 리해관계 그리고 서방식가치관에 따라 선택된 나라들의 인권상황이 문제시되는것은 절대로 허용될수 없으며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다.

유엔무대에서 판을 치는 제국주의자들의 부당한 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는것은 초미의 문제이다.

유엔의 민주화를 다그쳐 유엔의 최고기관인 총회의 중심적역할을 보장하며 제재와 무력사용을 비롯하여 평화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보장리사회결의들은 총회의 승인하에서만 효력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지난 시기 미국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여 수많은 나라들의 자주권을 유린해왔다.

유엔개혁의 핵심인 안전보장리사회개혁을 시급히 추진하여 리사회가 특정한 나라들의 전략적리해관계실현수단으로 악용되는것을 배격하며 리사회활동에서 책임성과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쁠럭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나라들의 충분한 대표권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여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평화를 파괴하며 내정간섭과 강권, 전횡을 일삼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실수 있다.

핵무기로 세계를 제패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은 현시기 극도에 달하고있다.

쁠럭불가담운동 성원국들의 발기에 따라 진행된 2013년 9월 핵군축에 관한 유엔고위급회의 합의대로 핵군축협상을 조속히 개시하여 무조건적인 핵불사용담보제공, 핵무기사용금지를 규제한 구속력있는 국제법적문서들이 작성되도록 함으로써 핵무기를 인류를 멸살시키고 다른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위협유린하는 수단으로 마구 휘둘러대는 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

2015년이후의 지속개발목표에 관한 유엔회의들에서 실현가능한 목표들을 설정하는 한편 공정한 국제경제관계수립, 환경상 깨끗한 기술이전과 재정지원강화 등 발전도상나라들의 리해관계가 반영된 실질적인 조치들이 나오도록 하는것은 더는 미룰수 없는 전인류적과제이다.

우리 공화국은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정책리념에 따라 쁠럭불가담운동성원국으로서 운동의 창립목적과 활동원칙에 부합되게 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시종일관 노력하여왔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쁠럭불가담운동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그 강화발전과 인류자주위업실현을 위하여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쁠럭불가담운동이 우리 시대 반제자주력량으로서의 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도록 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사회경제적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발전도상나라들의 투쟁에 아낌없는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쁠럭불가담운동강화사상과 업적은 우리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강성국가를 하루빨리 일떠세우기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그이의 령도따라 미래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앞당겨나갈것이다.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도 쁠럭불가담운동의 숭고한 리념과 원칙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다.

채일출

## 조선에서의 속도창조열풍

### 네팔신문의 글

네팔신문 《아르판》 최근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을 모시고 《조선에서의 속도창조열풍》이라는 제목의 글을 특집하였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천리마는 조선의 정신, 조선의 기상이다.

조선의 건설력사에 평양속도, 비날론속도, 천리마속도가 창조되여 지난 세기 전후 재더미우에서 사회주의공업국가가 일떠섰다.

80년대속도창조운동의 불길속에서 서해갑문이 20세기의 기적으로 솟아오르고 평양번영기가 창조되였다.

1990년대 제국주의자들의 전대미문의 압살책동으로 보통상식으로는 생존하기조차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켜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비상한 대고조진군속도를 끊임없이 창조한것이 바로 조선의 힘이다.

짧은 기간에 CNC기술의 최첨단을 돌파하고 10년을 3년, 1년으로 주름잡는 희천속도, 《마식령속도》가 창조된것은 경이적인 사변이다.

건설의 대전성기가 펼쳐진 지난 한해는 조선의 거창한 진군속도를 뚜렷이 실증해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를 찾으시고 이곳 사업소건설을 발기한 때로부터 불과 2개월남짓한 기간에 조업을 눈앞에 둔데 대해 조선속도라고 말씀하시였다.

력사는 다계단으로 변혁이 일어나는 대고조속도, 최첨단을 돌파하며 세계에로 나아가는 비약의 속도,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것을 실천으로 증명하는 영웅적인민의 속도가 조선속도라는것을 보여주었다.

## 로씨야통신이 우리 나라에서의 모내기를 소개

로씨야의 이따르-따쓰통신이 최근 우리 나라에서의 모내기를 소개하였다.

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해마다 5월이면 수도 평양을 비롯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도시들에서는 각계층 주민들이 협동농장들의 벼모내기를 도와주기 위해 농촌으로 나간다. 이 사업의 선봉에는 언제나 군인들과 청년들이 있다.

평양시교외에 나가면 붉은기들이 꽂혀있는 논판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이 눈길을 끈다.

방송선전차들에서 울려나오는 호소와 노래소리가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있다.

조선에서는 모내기를 성과적으로 끝내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이 진행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 지역적협조와 교류의 강화는 세계적추세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여러 나라, 지역들에서 지역적협조와 교류를 발전시켜 자체의 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고있다.

올해 꾸바에서 진행된 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국가공동체 수뇌자회의를 통해서도 알수 있다. 회의에서 연설한 꾸바국가리사회 위원장이며 내각수상인 라울 까스뜨로는 공동체가 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지역의 리익을 대표하는 합법적인 기구라고 주장하면서 지역나라들이 새로운 지역적 및 국제적협력의 모범을 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라틴아메리카에서 하나의 단합된 정치력량을 이루고 지역적범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공동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있는것은 자주에로 나가는 현 국제정치정세흐름을 반영한것이다.

2011년 12월에 미국을 배제하고 창설된 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국가공동체는 제국주의자들이 세계정치를 주도하며 쥐락펴락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으며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자기 힘으로 운명을 개척하며 발전하는것만이 인류가 나아갈 길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지금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은 세계 여러 나라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자기의 지위를 더욱 높여나가고있다. 제국주의의 침략과 간섭책동을 반대하고 자주적발전과 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지역적협조를 강화하고있다.

아프리카나라들이 자기의 잠재력을 적극 발휘하면서 지역의 번영과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남아프리카대통령은 전체 인민이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발전을 이룩할것을 호소하였다. 이 나라에서는 철도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까지 요한네스부르그와 프레토리아사이의 철길신호체계를 현대화하는 사업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케니아에서는 2030년까지의 국가발전전략의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몸바사—말라바고속철도건설을 계획하고 공사에 많은 자금을 돌리고있다. 이와 함께 케니아정부는 6만 800kW에 달하는 새로운 풍력발전소와 다리, 고속도로, 살림집들을 건설하고 비행장들과 상하수도망을 현대화할데 대한 47건의 대상공사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세워나가고있다.

한편 가나에서도 2016년까지 나라의 발전능력을 500만kW로 끌어올릴것을 계획하고 발전소들의 주요연료로 리용되고있는 천연가스생산을 늘이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지난해말 가나의 서북부지역에 40만kW의 발전능력을 가진 수력발전소가 건설되여 조업하였다.

분쟁문제를 지역자체의 힘으로,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아프리카나라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있다.

최근 말리정부와 반정부세력사이에 정전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분쟁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출로가 열리게 되였다. 협정에 따라 평화와 안정, 화해, 발전을 이룩할수 있는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고 한다.

남아프리카, 민주꽁고, 앙골라가 지난해에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다그치기 위한 공동위원회창설에 관한 량해각서를 채택하였다.

아시아나라들에서도 쌍무 및 다무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적극화되고있다.

얼마전 필리핀과 싱가포르가 군사, 안보, 정보기술,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쌍무관계를 발전시킬데 대하여, 이란과 까타르가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며 쌍무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인디아와 스리랑카는 두 나라 중앙은행들사이의 정보교류와 협조를 강화할데 대한 량해각서를 채택하였다.

기타 여러 나라에서도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알바니아와 레바논이 쌍무협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한데 이어 쓰르비아와 마께도니아가 관세장벽을 해제하고 쌍무무역협조를 발전시킬데 대해 합의하였다. 브루네이와 뽈스까가 국방분야에서 호상협조를 강화할데 대한 량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베네수엘라와 감비아가 교육, 농업, 에네르기분야에서 쌍무협조를 확대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사실들은 자체의 력량을 강화하면서 호상협조와 교류를 발전시켜 자주적이며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이 세계적흐름으로 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본사기자

## 국방력강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한 노력

◎◀

### 인디아에서

인디아가 5월 28일 오리싸주에 있는 군사기지에서 국산제 《피나카》로케트들을 시험발사하였다.

이 로케트들은 일제사격으로 40㎞범위안의 진지들과 콩크리트구조물, 지하갱도들까지 파괴할수 있다고 한다.

또한 인디아에서 3월에 끝난 지난 회계년도에 경제가 4.7% 장성하였다. 5월 30일 이 나라 중앙통계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캄보쟈에서 모내기

### 슬로베니아에서

슬로베니아군부가 최근 싸이버안전보장을 위한 특수기구를 새로 설립하였다. 이 기구는 국가싸이버체계의 안전을 책임지고 싸이버공격에 대처할수 있는 준비를 갖추며 위험요소들을 발견하고 제거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고 한다.

### 중국에서

중국에서 대기오염을 없애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최근 정부는 자동차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도를 줄이기 위해 올해안으로 600만대, 래년에는 500만대의 낡은 자동차들의 운행을 금지시킬데 대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질이 낮은 휘발유와 경유의 사용도 금지하게 된다.

특히 뻐스를 비롯한 교통운수수단들의 천연가스리용비률을 계속 늘이며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운수기재개발을 적극 장려할것이라고 한다.

### 로씨야에서

로씨야의 법보호기관성원들이 최근 모스크바지역에서 반테로작전을 벌려 살인행위를 일삼으며 사회적안정을 파괴하려고 책동하던 범죄그루빠를 적발하였다. 작전과정에 여러명의 테로분자들을 체포하고 무기와 탄약, 조준경 등을 몰수하였다고 한다.

◇▲

## 독립국가협동체 정부수반리사회 회의 진행

【평양 6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독립국가협동체 정부수반리사회 회의가 5월 30일 벨라루씨의 민스크에서 진행되였다.

협동체성원국 정부수반들과 대표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성원국들의 사회경제발전과 보건, 문화, 교육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의 협조 등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회의끝에 과학기술정보교류, 교통안전보장, 군사 등 분야에서 성원국들사이의 협조를 발전시킬데 관한 문건들이 조인되였다.

## 아프리카개발은행 회의에서

### 지역적인 하부구조발전 호소

우간다대통령 요웨리 카구타 무쎄베니가 얼마전 아프리카개발은행 회의에서 연설하였다.

그는 대륙의 발전을 이룩할수 있는 방도는 공업화를 실현하는데 있다고 하면서 하부구조건설을 다그쳐 제작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해 강조하였다.

### 대륙의 안전강화를 강조

가봉대통령 알리 봉고 옹딤바는 회의연설에서 대륙의 안전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안전이 보장될 때에만 대륙나라들이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철도, 비행장, 고속도로 등을 건설하여 무역을 발전시키며 통합과정을 다그칠수 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미국과 남조선의 인권유린행위를 폭로한 자료들

### 유엔총회 및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공식문건으로 배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와 미군범죄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북측본부가 발표한 미국의 인권범죄비망록 《미국이 조선민족에게 감행한 전대미문의 반인륜적대범죄를 폭로, 단죄한다》, 조국통일연구원과 남조선인권대책협회가 발표한 남조선인권백서 《세계최악의 남조선인권실태를 고발한다》, 조선중앙통신사 기사 《쓰디쓴 고백, 참담한 반인권현실》이 2일 유엔총회 및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공식문건 A/68/869-S/2014/321호로 배포되였다.

### 미국의 전화도청행위 폭로

중국 인터네트보도연구쎈터가 5월 26일 《세계적범위에서의 미국의 감청행동기록》을 발표하였다.

문건은 미국이 《반테로》의 간판밑에 중국정부와 지도자들, 기업체들과 과학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전화도청행위를 감행하고있는데 대해 폭로하였다.

문건은 미국이 저들의 처사에 대해 똑똑히 설명하고 인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이러한 행위를 중지하며 전세계 네트워크공간에서 긴장과 적의를 조장하는짓을 그만둘것을 요구하였다.

## 여러 나라에서 자연피해

### 무더기비피해

로씨야의 씨비리지역에서 최근 며칠동안 계속된 무더기비로 큰물이 났다.

큰물로 1957채의 살림집이 물에 잠기고 2 000명이상의 주민들이 소개되였다. 또한 도로와 다리들이 파괴되고 송전선들이 끊어졌으며 일부 주민지대들에 대한 물과 전력공급이 중단되였다. 알따이공화국에서는 4일동안에만도 한달강수량과 맞먹는 비가 내렸으며 이로 하여 비상사태가 선포되였다.

쓰르비아에서 큰물피해

### 번개로 인명피해

인디아의 서부벵갈주에서 5월 31일 번개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6명이 목숨을 잃고 10여명이 부상당하였다 한다.

### 폭풍피해

미국의 휴스톤시에 5월 27일 폭풍이 들이닥쳐 피해가 났다. 폭풍으로 10여명의 사상자가 나고 일부 도로들이 페쇄되였으며 주민지역에 대한 전력공급이 중지되였다.

【조선중앙통신】

## 스스로의 고립을 몰아오는 미국식처방

얼마전 미국회 상원외교위원회에서 그 무슨 인권과 민주주의상황을 거론하며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법안을 통과시켰다. 주목되는것은 법안에 베네수엘라의 반정부세력에 1 500만US$의 자금지원항목이 포함된것이다. 이것이 반정부세력의 책동으로 가뜩이나 복잡한 베네수엘라정국에 키질하는 격이 된다는것은 론할 여지가 없다.

사회주의기치를 들고 나아가는 베네수엘라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미국의 책동은 오늘에 와서 시작된것이 아니다. 이전 대통령 차베스시기로부터 현 대통령 마두로정권에 이르기까지 매우 끈질기고 집요하게 벌어지고있다. 베네수엘라 내무 및 사법상은 올해에 들어와 잦아지는 반정부행동들이 미국의 비렬한 음모의 산물이라고 까밝혔다. 베네수엘라정부가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모든 정당들이 참가하는 민족적대화를 주도해나가는 현시점에서 미국이 정부인물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를, 반정부세력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약속한것은 그 흉심이 무엇인가를 적라라하게 드러내놓고있다.

사회주의는 베네수엘라인민들 자신이 선택한 길이다. 이 나라 인민은 자기가 정한 길을 따라 나아갈 의지에 충만되여있다. 그 어떤 제재와 압력도 이 나라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꺾을수 없으며 자주화를 지향하는 오늘의 세계에서 결코 용납될수 없다.

베네수엘라대통령은 그 누구도 우리의 문제에 간섭할수 없다, 베네수엘라문제는 베네수엘라사람들이 해결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볼리비아대통령은 미국이 민주주의적으로 선거된 베네수엘라정부를 뒤집어엎으려고 획책하고있다고 폭로하면서 미국은 모든 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지역 나라들에 수립된 정치제도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알바성원국 대표들은 콤뮤니케를 발표하여 미국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가 이 나라의 현실에 맞지 않으며 국제법에 어긋난다고 단죄하였다.

제재는 세계제패라는 현훈증에 걸려있는 미국에 있어서 다른 나라와 민족을 길들이기 위한 하나의 처방이다. 그 자대는 철두철미 미국의 리익에 뿌리를 둔 일방적이며 독선적인 기준이다. 때문에 제재와 간섭의 과녁이 된 나라와 지역들은 례외없이 아메리카제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리해관계와 깊숙이 얽혀있다.

미국이 《중재자》로 자처하며 우크라이나문제에 머리를 들이밀고 로씨야에 대한 제재소동을 일으키고있는것도 여기에 기인된다. 아래에 《중재자》의 본색을 투시해주는 언론의 자료가 있다.

도이췰란드신문 《빌드 암 존타그》는 우크라이나의 동부지역에서 미국고용병들이 활동하고있는 사실을 폭로하였다. 신문은 약 400명의 악명높은 미국고용병들이 슬라반스크지역에서 련방제지지자들을 반대하는 군사작전에 참가하고있다고 밝혔다. 고용병들이 소속된 회사는 미국무성과 미국방성의 주문의 90%를 담당수행하고있는데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고용병들을 리용하는데 매달 800만US$를 소비하고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위기가 악화될수록 그것을 간섭의 공간으로 삼고 잠재적적수를 견제압박하고 저들의 지배권을 확장하자는것이 로씨야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를 운운하는 미국이 노리는 궁극적목적이다.

양키식기준이 얼마나 독선적인가 하는것은 지난 3월 조선반도에서 있은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새해가 시작되기 바쁘게 방대한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북침전쟁연습을 그칠 사이없이 벌리고있던 미국이 우리 인민군대가 정상적인 로케트발사훈련을 진행하자마자 정수리에 벼락이라도 떨어진것처럼 법석 떠들다 못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동원하여 《규탄》하는 억지공사를 벌려놓은데 대해서는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한 미국이 남조선괴뢰들이 감행한 500㎞의 사거리를 가진 탄도미싸일발사시험은 아예 모르쇠를 하며 일체 함구무언하였다.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의 정의로운 행동은 불의로 보이고 웃섶을 붙잡고 아양을 떠는 하수인들의 행위는 《선한 일》로 평가되는 날강도적인 이중기준과 행동방식이 미국으로 하여금 할 말을 잃게 하고 입을 벌릴 용기조차 내지 못하게 한것이다.

그도그럴것이 남조선괴뢰들이 발사한 탄도미싸일에 대하여 말한다면 미국이 사거리를 800㎞까지 늘이도록 승인해주고 핵심기술까지 슬그머니 전수해주면서 비밀리에 발사하라고 떠밀어주어 빚어낸 상전과 주구의 결탁물이였다.

어른이 철없는 아이들처럼 편역을 들며 놀아대면 바보짓을 한다고 비난받기가 일쑤이다. 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이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기준을 자대로 하여 같은 현실을 놓고도 하늘과 땅과 같은 극적인 대조로 망녕든 행위에 매달릴수록 차례지는것은 공정한 국제사회의 랭대이며 거세여지는것은 반미열풍뿐이다.

이에 대해 미국인들자신이 인정하고있다. 한 여론조사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인의 절반이상이 자국이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10년간 내정간섭으로 하여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지위는 떨어지고 영향력이 약화되였다는것이 응답자들의 견해였다.

그런가하면 지난해 미국무성이 2001년 9월 11일 테로사건이 있은 후 세계적으로 반미시위들이 극적으로 확대되였다는 보고서를 발표한것은 그에 대한 또 하나의 립증이다. 그중 일부만을 보자. 9.11사건이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자 약 3개월동안 전세계에서 235건의 반미시위가 발생하였다. 특히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미국이 《테로와의 전쟁》을 선포한 나라들에서 폭력을 동반한 반미시위가 집중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여 중동 및 북아프리카지역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2012년 세계에서 미국인과 미국의 《국익》을 해친 주요사건은 그 전해보다 24% 증가하여 근 100건에 달하였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지역에서 61건이 발생하였다.

물론 이것은 미국이 자체로 발표한 자료로서 세계도처에서 벌어진 반미투쟁중 극히 축소된 수자에 불과하다. 허나 여기서 확인할수 있는것은 반미투쟁이 오늘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되고있다는것이다. 강권과 전횡, 부당한 내정간섭으로 일관된 미국식처방은 미국을 세계우에 군림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행성의 버림받는 고아로 만들고있다.

본사기자 배금희

필리핀에서 반미시위

ㄱ-410871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